2024. 6. 1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02-2133-0200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	02-2133-0220
관련 누리집	https://seouloutdoorlibrary.kr/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우수 정책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 개최

- 서울도서관. 6.28.(금)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 개최
- 세계 최초 이외도서관 '책임는 서울광장', '광회문 책미당', '책임는 맑은냇가' 운영 시례 소개
- 전국 각지 벤치마킹 위한 견학 요청 쇄도…정책설명회로 독서문화 공간 확산 기대
- □ 서울도서관은 6. 28.(금)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서울야외 도서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에서 서울야외도서관 관련 문의 및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 이번 설명회는 '서울야외도서관' 세 거점(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야외도서관'의 개념 및 가치,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마지막에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는 서울야외도서관에 관심 있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학 및 민간기업(단체) 소속 누구나 6. 21.(금)까지 구글폼 (https://forms.gle/idfE3szMjvQR4KDX9)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자도 당일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서울야외도서관은 탁 트인 공공장소에 대규모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 공간 개념을 야외공간으로 확장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 사례이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도서관 부문 최고 권위 국제기구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작년 한 해 서울야외도서관에 총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고, 올해는 4월 18일 개장 후 8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여 높은 시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4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 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Award) 2등 수상
 - 202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친환경 도서관(Green Library Award) 3등 수상
 ※ 전국도서관 최초 2년 연속 국제상 수상
 - 2023 **정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주최: 행정안전부)
 - 2023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특별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2023~2024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등재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2023 지방공무원 정책 연구발표대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주최: 행정안전부)
- □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야외도서관을 벤치마킹해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에서 '야외도서관' 명칭이나 유사 컨셉의 30여 곳의 독서문화공간 조성이 전국 각지에서 출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읽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진구 '광진 야외 도서관', 대전시 '달빛 야외도서관', 단국대학교 '자연친화 야외도서관 베어

토피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민음사-현대백화점 '프라하, 낭만을 꿈꾸다(Dreaming Abouv Pradue)' 등

□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서울야외도서관과 같은 책문화 공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서울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일상을 지원하는 서울 대표 문화 플랫폼 서울야외도서관을 통한 혁신적인 도서관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야외도서관 정책설명회 포스터 1부. 끝.

